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직속 국어사정위원회

조선말규범집

사회과학원출판사
1966-6

머 리 말

오늘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명도밑에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끝 향하여 힘차게 내달으면서 민족적인 대번영을 이룩하고있다.

이러한 발전하는 현실은 우리 말을 더한층 발달시키고 인민들의 언어생활에서 문화성을 더욱더 높일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글을 쓰고 말을 하는데서 지켜야 할 온갖 규범들을 과학적으로 더욱 정밀화하는것은 매우 큰 의의끝 가진다.

이 중요성에 비추어 국어사정위원회는 《조선말규범집》을 채택하여 공포한다.

이 규범집은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법 및 표준 발음법과 관련된 규범들을 더욱 정밀화한 규정을 담고있다.

이 규범집이 나감과 함께 《조선어친자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1954년)은 쓰지 않는다.

이 규범집에서 쓴 학술용어들은 앞으로 다듬는데 따라서 바뀔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직속 국어사정위원회

1966년 6월

차례

맞춤법

총칙	(4)
제1장. 자모의 차례와 그 이름	(4)
제2장. 형태부의 적기	(5)
제3장. 어간과 토의 적기	(9)
제4장. 합성어의 적기	(16)
제5장. 접두사와 어근의 적기	(17)
제6장. 이근과 접미사의 적기	(17)
제7장. 한자어의 적기	(21)

띄어쓰기

총칙	(23)
제1장. 명사와 관련한 띄어쓰기	(23)
제2장. 수사, 대명사와 관련한 띄어쓰기	(28)
제3장. 동사, 형용사와 관련한 띄어쓰기	(30)
제4장. 관형사, 부사, 감동사와 관련한 띄어쓰기	(33)
제5장. 섞갈리기 쉬운것들의 띄어쓰기	(34)
제6장. 특수한 말의 띄어쓰기	(35)

문장부호법

총칙	(36)
제1항. 문장부호의 종류와 이름	(36)
제2항. 점(.)	(36)
제3항. 두점(:)	(37)
제4항. 반두점(;)	(37)
제5항. 반점(,)	(38)

제6항.	의문표(?)	(39)
제7항.	감탄표(!)	(40)
제8항.	이음표(-)	(41)
제9항.	줄이표(—)	(41)
제10항.	줄임표(…)	(42)
제11항.	인용표(《 》, < >)	(42)
제12항.	괄호((), [])	(43)
제13항.	밑점(...)	(44)
제14항.	숨김표(○○○)	(44)
제15항.	갈음표(")	(44)
제16항.	불건표(~)	(45)
제17항.	인용표와 괄호 안에서의 부호	(45)
제18항.	제목글에서의 부호	(47)
제19항.	대목이나 장, 절 등을 가르는 부호와 그 차례	(47)

표준발음법

총칙	(48)
제1장. 모음의 발음	(48)
제2장. 단어 첫머리의 발음	(49)
제3장. 받침소리의 발음	(49)
제4장. 받침이 뒤의 모음과 이어질 때의 발음	(51)
제5장. 받침에 따라 그뒤의 순한소리물 된소리로 내는 발음	(53)
제6장. 《古》와 관련된 발음	(54)
제7장. 동화현상이 일어날 때의 발음	(56)
제8장. 사이소리현상이 일어날 때의 발음	(59)
제9장. 한자어에 접두사나 접미사가 붙어서 다 른 한 단어를 이룰 때의 발음	(61)
제10장. 단어끝이 어울릴 때의 발음	(61)
제11장. 한자어에서의 된소리의 발음	(63)

맞춤법

총 칙

1. 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의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2. 조선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쓰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 장. 자모의 차례와 그 이름

제1항. 조선말자모의 차례와 그 이름은 다음과 같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기웁) (니은) (더은) (리웁) (미웁) (비웁) (시웁)

ㅇ ㅈ ㅊ ㅋ ㆁ ㆑ ㆓
(이웁) (지웁) (치웁) (키웁) (티웁) (피웁) (히웁)

ㅍ ㅌ ㅍ ㅍ ㅍ
(뉘기웁) (뉘더은) (뉘비웁) (뉘시웁) (뉘지웁)

ㅏ ㅑ ㅓ ㅕ ㅗ ㅛ ㅜ
(아) (야) (어) (여) (오) (요) (우)

ㅠ ㅡ ㅣ ㅞ ㅟ ㅠ ㅡ
(유) (으) (이) (애) (애) (에) (예)

ㄱ (의) ㄱ (위) ㄱ (의) ㅊ (와) ㄱ (위) ㄴ (왜) ㄴ (왜)

차음자의 이름은 각각 다음과 같이 부를수도 있다.

(그) (느) (드) (트) (므) (보) (스) (으) (즈) (츠)
 (크) (로) (프) (호) (꼬) (뜨) (트) (쓰) (프)

제2장. 형태부의 적기

제2항. 조선글에서 쓰는 받침은 다음과 같다.

받침

례

- ㄱ {박(박이, 박을, 박에)
 {먹다(먹으니, 먹어, 먹지)
- ㄴ {논(논이, 논을, 논에)
 {안다(안으니, 안아, 안지)
- ㄷ {말아듣
 {굳다(굳으니, 굳어, 굳지)
 {들다(들으니, 들어, 들지)
- ㄹ {길(길이, 길을, 길에)
 {민다(미니, 밀어, 밀지)
- ㅁ {땀(땀이, 땀을, 땀에)
 {심다(심으니, 심어, 심지)
- ㅂ {집(집이, 집을, 집에)
 {끓다(끓으니, 끓아, 끓지)
 {굽다(구우니, 구워, 굽지)
- ㅅ {옷(옷이, 옷을, 옷에)
 {숫다(숫으니, 숫아, 숫지)
 {잇다(이으니, 이어, 잇지)

- {땅(땅이, 땅을, 땅에)
 {동이다(동이니, 동여, 동이지)}
- ㅈ {젓(젓이, 젓을, 젓에)
 {맞다(맞으니, 맞아, 맞지)}
- ㅊ {빛(빛이, 빛을, 빛에)
 {쫓다(쫓으니, 쫓아, 쫓지)}
- ㅋ 부엌(부엌이, 부엌을, 부엌에)
- ㄷ {밭(밭이, 밭을, 밭에)
 {말다(말으니, 말아, 말지)}
- ㅊ {숲(숲이, 숲을, 숲에)
 {높다(높으니, 높아, 높지)}
- ㅎ {좋다(좋으니; 좋아, 좋지)
 {빨갳다(빨가니, 빨개, 빨갳지)}
- ㅈ {밖(밖이, 밖을, 밖에)
 {엮다(엮으니, 엮어, 엮지)}
- ㅊ 뭇(뭇이, 뭇을, 뭇에)
- ㅊ 앉다(앉으니, 앉아, 앉지)
- ㅊ 많다(많으니, 많아, 많지)
- ㄷ {닭(닭이, 닭을, 닭에)
 {맑다(맑으니, 맑아, 맑지)}
- ㅊ {삼(삼이, 삼을, 삼에)
 {짧다(짧으니, 짧어, 짧지)}
- ㅊ {여덟(여덟이, 여덟을, 여덟에)
 {넓다(넓으니, 넓어, 넓지)}
- ㄷ 뚫(뚫이, 뚫을, 뚫에)
- ㅊ {좁다(좁으니, 좁어, 좁지)}
- ㅊ {을다(을으니, 을어, 을지)}
- ㄷ {음다(음으니, 음아, 음지)}
- ㅊ {값(값이, 값을, 값에)
 {없다(없으니, 없어, 없지)}
- ㅊ 있다(있으니, 있어, 있지)

제3항. 받침 《ㄷ, ㄷ, ㅅ, ㅅ, ㅈ, ㅈ》가운데서 어느 하나로 적어야 할 까닭이 없는것은 전통적관습을 따라 《ㅅ》으로 적는다.

예: 무릇, 병긋병긋, 사뭇, 솟들, 첫째, 첫소문, 헛꼭식, 얼땡, 빗나가다, 읽으렷다

제4항. 한 형태부안의 두 모음사이에서 나는 자음은 설측음이 아닌 한에서 받침으로 적지 않는다.

예:	음	그음
1)	겨누다	견우다
	더더다	덜이다
	메추리	멧추리
	비치다(해가 비치다)	빛이다
	소쿠리	속쿠리
	시키다(일을 시키다)	식히다
	지키다	직히다
	여기다	역이다
2)	기쁘다	깃쁘다
	바짝	밭작
	부썩	붓씩
	해쓱하다	햇쓱하다
	아끼다	앗기다
	여쭙다	엿쭙다
	오빠	옴바
	오뎀	웃뎀

제5항. 한 형태부안의 두 모음사이에서 나는
 설측음은 《ㄹㄹ》로 적는다.

예:	음음	그음
	결레	결베
	놀다다	놀나다
	벌레	벌베
	실득실득	실눅실눅
	말래	말내
	알라달라	알낙달낙
	얼론	얼논

제6항. 한 형태부안에서 받침 《ㄴ, ㄹ, ㅁ, ㅇ》
 다음의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는 아래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예:	반작	그작
	반작반작	반작반작
	알뜰살뜰	알똥살똥
	말씀	말슴
	벌써	벌서
	뀨뀨	뀨뀨
	활작	활작
	음작달삭	음작달삭
	몽죽하다	몽죽하다

그러나 토에서는 《ㄹ》뒤에서 된소리가 나
 더라도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예:	음음	그음
	-ㄹ가	-ㄹ까
	-ㄹ수륙	-ㄹ쑤륙

-르지라도

-르져라도

-올시다

-올써다

제7항. 형태부의 소리가 들어진 경우에는 준대로 적되 본디형태에 가깝게 받침을 바로 잡아 적는다.

예:

꺾음

그음

갓고(가지고)

갓고

기떡아(기떡기야)

기떡가

덜고(더더고)

덜고

엇그저께(어제그저께)

엇그저께

엇저녁(어제저녁)

엇저녁

제3장. 어간과 토의 적기

제8항. 어간과 토가 어울릴적에는 각각 그 본디 형태를 밝혀적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집이, 집을, 집에

팔이, 팔을, 팔에

흙이, 흙을, 흙에

입다, 입으니, 입어, 입지

낱다, 낱으니, 낱아, 낱지

짧다, 짧으니, 짧어, 짧지

제9항. 오늘날 어간에 토가 붙은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것들을 밝혀적지 않는다.

예:	음음	그음
	나라나다	날아나다
	바다보다	발아보다
	바타지다	발아지다
	부머지다	불어지다
	사타지다	살아지다
	자타나다	잘아나다
	자빠뜨리다	잡빠뜨리다

어간에 토가 붙은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뜻이 다른 딴 단어로 넘어간것은 그 어간피 토를 밝혀적지 않는다.

예:	음음	그음
	나마(연골나마 절렀다)	남아
	너머(고개너머에 있다)	넘어
	드터나다(일이 드터나다)	뚫어나다
	쓰러지다	살어지다

제10항. 일부 용언에서 어간파 토가 어울릴적에 어간의 끝소리가 일정하게 바뀌여지는것은 바뀐대로 적는다.

1) 어간의 끝음 <리>로 적거나 ㅁ버리는 경우

예: 갈다—갈고, 갈미, 갈아
가니, 갑니다, 가시니, 가오

돌다—돌고, 돌며, 돌아
도니, 돕니다, 도시니, 도오

불다—불고, 불며, 불어
부니, 불니다, 부시니, 부오

어간이 <리>로 끝나는 동사와 형용사는 전부 여기에 속한다.

2) 어간의 끝을 <시>으로 적거나 쉼버리는 경우

예: 낮다—낮고, 낮지
나오니, 나가

짓다—짓고, 짓지
지오니, 지어

잇다—잇고, 잇지
이오니, 이어

3) 어간의 끝을 <하>으로 적거나 쉼버리는 경우

예: 빌절다—빌절고, 빌절지
빌절오, 빌절니, 빌절랴
빌절머, 빌절니다, 빌절개서

커다랗다—커다랗고, 커다랗지
커다랗오, 커다랗니, 커다랗랴
커다랗니다, 커다랗새

희열다—희열고, 희열지
희열오, 희열니, 희열랴, 희열먼
희열니다, 희열새

<하>받침으로 끝난 본어의 어간이 두 음절이상인 동사나 형용사는 전부 여기에 속한다.

4) 어간의 끝을 <디>—<리>로 적는 경우

예: 길다—길고, 길지
길오니, 길이

들다—들고, 들지
들오니, 들어

물다—물고, 물지
물오니, 물어

5) 어간의 끝을 <ㅂ>—<오>, <우>로 적는 경우

예: 돕다—돕고, 돕지
도우니, 도와
- 맵다—맵고, 맵지
매우니, 매워
출다—출고, 출지
추우니, 추워

6) 어간의 끝을 <ㄹ>—<ㄹㄹ>로 적는 경우

예: 누르다—누르고, 누르지
누르러, 누르렀다
푸르다—푸르고, 푸르지
푸르러, 푸르렀다
이르다—이르고, 이르지
이르러, 이르렀다

7) 어간의 끝을 <ㄷ>—<ㄷㄷ>로 적는 경우

예: 기르다—기르고, 기르지
기르러, 기르렀다
흐르다—흐르고, 흐르지
흐르러, 흐르렀다
마르다—마르고, 마르지
마르러, 마르렀다

제11항. 어간이 《아, 어, 여》 또는 《았, 었, 였》과 어울릴 때에는 그 어간의 모음의 성질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적는다.

1) 어간의 모음이 <ㅏ, ㅑ, ㅓ, ㅕ, ㅗ, ㅛ>인 경우에는 <아, 았>으로 적는다.

예: 막다, 막아, 막았다
얕다, 얕아, 얕았다
오다, 와, 왔다

따르다, 따라, 따랐다
오르다, 올라, 올랐다

어간의 모음이 <ㅏ, ㅑ>인 것이라도 합성어간의 경우에는 <어, 었>으로 적는다.

예: 받들다, 받들어, 받들었다
울름다, 울름어, 울름었다

2) 어간의 모음이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인 경우에는 <어, 었>으로 적는다.

예: 넣다, 넣어, 넣었다
꺾다, 꺾어, 꺾었다
두다, 두어, 두었다
크다, 커, 컸다
거물다, 거물어, 거물었다
부르다, 불러, 불렀다
호르다, 호려, 호렀다
치르다, 치려, 치렀다

3) 어간의 모음이 <ㅣ, ㅞ, ㅟ, ㅠ, ㅡ, ㅢ>인 경우와 어간이 <하>인 경우에는 <어, 었>으로 적는다.

예: 기다, 기어, 기었다
개다, 개어, 개었다
베다, 베어, 베었다
되다, 되어, 되었다
쥐다, 쥐어, 쥐었다
회다, 회어, 회었다
하다, 하여, 하였다

그러나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을 경우에는 <어, 었>으로 적는다.

예: 짊다, 짊어, 짊었다
심다, 심어, 심었다
짓다, 지어, 지었다

있다, 이어, 이었다
 땀다, 땀어, 땀었다

부사로 된 다음의 단어는 아래와 같이 적는다.

예: 음음 그자
 구태어 구태어
 도리어 도리어
 드디어 드디어

제12항. 모음으로 끝난 어간과 모음으로 시작
 한 토나 접미사가 어울릴 적에 소리가 줄어들
 든것은 준대로 적을수 있다.

예: 1) { 뜨다—뜨이다, 뜨이어, 뜨이였다
 뜨다—떠다, 떠여, 떠였다
 { 쓰다—쓰이다, 쓰이어, 쓰이였다
 쓰다—썩다, 썩여, 썩였다
 { 모이다—모이어, 모이였다
 모이다—뒹여, 뒹였다; 모여, 모였다
 { 보다—보아, 보았다
 보다—봐, 봤다
 { 쓰다—쓰아, 쓰았다
 쓰다—썩, 썩었다
 { 주다—주어, 주었다
 주다—줘, 줬다
 { 꾸다—꾸어, 꾸었다
 꾸다—꿔, 뒹다
 { 고이다—고이어, 고이였다
 괴다—괴여, 괴였다
 { 꼬이다—꼬이어, 꼬이였다
 피다—피여, 피였다
 { 쓰이다—쓰이어, 쓰이였다
 썩다—썩여, 썩였다
 { 쯔이다—쯔이어, 쯔이였다
 쯔다—쯔여, 쯔였다

- { 가지다—가지여, 가지었다
 가지다—가져, 가졌다
- { 오시다—오시여, 오시었다
 오시다—오셔, 오셨다
- 2) { 하다—하여서, 하였다
 하다—해서, 했다
- { 되다—되여서, 되었다
 되다—돼서, 뒀다
- 3) { 깨다—깨여서, 깨었다
 깨다—개서, 겠다
- { 메다—메여서, 메었다
 메다—메서, 땀다

그러나 다음의 단어들은 줄어든대로만 적는다.

- 예: 1) 지다—져, 졌다
 찌다—찌, 찼다
 치다—치, 쳤다
- 2) 건느다—건너, 건넜다
 잠그다—잠가, 잠갔다
 치르다—치려, 치렀다
 크다—켜, 켜다
 따르다—따라, 따랐다
 쓰다—써, 썼다
- 3) 가다—가, 갔다
 사다—사, 샀다
 서다—서, 섰다
 켜다—켜, 켜다

제13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卜》가 줄어지면
 서 다음에 온 토의 첫소리 자음이 거세게
 될 때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본말	준말
가하다	가랴
다정하다	다정랴
메하건대	메친대

그러나 《아니하다》가 줄어진 경우에는 《않다》로 적는다.

제 4 장. 합성어의 적기

제14항. 합성어는 매개 어근의 본디형태를 각각 밝혀적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1) 걸잡다, 낫보다, 눈웃음, 돌보다, 물오리, 밥알, 손아귀, 친없다, 꽃친, 끝나다

2) 값있다, 길하다, 빛남, 빛나다, 갈남, 팔았, 품내

그러나 오늘날 어근이 뚜렷하지 않은것은 그 본디형태를 밝혀적지 않는다.

예: 며칠, 부랴부랴, 부리나케, 오타비니, 이틀, 이때

제15항. 합성어를 이물적에 [ㅂ]가 덧나거나 순한소리가 거센소리로 바뀌어나는것은 덧나고 바뀌어나는대로 적는다.

예: 멍쌀, 줍쌀, 찹쌀

머리카락, 살코기, 안팎, 양담

제16항. 합성어를 이물적에 빠진 소리는 빠진 대로 적는다.

예: 다달이, 마소, 모자타다, 바느질, 부나비, 부삽, 부손, 소나무, 여달이

제17항. 합성어에서 앞 어근의 끝소리 [ㄹ]가 폐쇄음으로 된것은 《ㄷ》으로 적는다.

예: 설달, 순가락, 이룬날

제18항. 종전에 써오던 사이표(')는 발음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없앤다.

제 5 장. 접두사와 어근의 적기

제19항. 접두사와 어근이 어울릴적에는 각각 그 본디형태를 밝혀적는다.

예: 덧신, 덧저고리, 말누이, 빗보다, 선웃음, 깃발다, 함의, 헛더더다.

제 6 장. 어근과 접미사의 적기

제20항. 자음으로 시작한 접미사가 어근과 어울릴적에는 각각 그 형태를 밝혀적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새단어를 새끼치는 접미사

예: 뜰추, 낚시, 늪수그레하다, 덩개, 셋째, 넷째, 힘껏, 꽃답다, 끝장, 뜰적뜰적하다, 잎사귀

2) 동사의 사역 또는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

예: 감기다, 담기다, 말기다, 움기다, 웃기다, 걸기다, 막히다, 밝히다, 앉히다, 익히다, 입히다

3) 힘줄을 나타내는 <치>

예: 밀치다, 열치다, 뺨치다, 앞치다, 받치다

4) 현용사를 동사로 만드는 <이>, <히>, <추>

예: 높이다, 굽히다, 굽히다, 넓히다, 밟히다, 낮추다, 낮추다

5) <하다>가 붙어서 현용사로 될수 있는 어근과 어울려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히>

예: 넉넉히, 당당히, 꾸준히, 뚝뚝히

제21항. 《리 려 르 료》 등의 들받침으로 끝난 어근에 접미사가 어울릴적에 그 들받침중의 한 소리가 따로 나지 않는것은 아니나는대로 적는다.

예: 말끔하다, 말쑥하다, 실쭙하다, 칼팍칼팍하다, 넘적다리

제22항. 어근과 접미사가 어울리어 아주 다른 뜻으로 바뀐것은 그 어근과 접미사를 밝혀

적지 않는다.

예: 거두다, 거르다, 드리다, 드리다(선물을 드리다), 미루다, 바치다(맹비를 바치다), 부치다(편지를 부치다), 이루다

제23항.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어근과 어울릴적에는 다음과 같이 갈라적이다.

1) 어근과 접미사를 밝혀지는 경우

(1) 명사나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

예: ① 깊이, 갱이, 높이, 미달이, 벼훤이, 살림살이, 손잡이, 쇠붙이, 해돋이

② 내눈이, 삼발이

③ 같이, 많이, 갱이, 굳이, 좋이

④ 곳곳이, 날날이, 살살이, 집집이

그러나 외성의래어에 붙어서 명사를 이루는것은 밝혀지지 않는다.

예: 매미, 찌꼬리, 딱따구리, 디퍼리, 두드럭기, 무더기, 깎두기, 일무기

(2)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음>

예: 갱음, 절음(전음을 절다), 물음, 믿음, 줄음, 꽃뚝음, 얼음, 엮음, 웃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단어는 어근과 접미사를 밝혀지지 않는다.

예: 거뭇(거뭇을 내다), 고름

(3) 동사의 사역 또는 피동을 나타내거나 형용사를 동사로 만드는 접미사들인 <이>, <우>, <오키>, <이키>, <애>

예: 놓이다, 먹이다, 짝이다, 볼우다, 일우키다, 물이키다, 없애다

(4) 《하다》가 붙어서 형용사로 될수 있는 어근과 어울려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

예: 바루이, 반듯이(반듯이 띄놓다), 큼직이, 깨끗이, 꼼꼼이, 깨끗이, 따듯이, 뚜렷이

(5)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없》

예: 객없다, 부질없다, 시름없다

(6) 《거리》와 어울릴수 있는 어근에 붙어서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

예 : 번득이다, 번쩍이다, 속삭이다, 움직이다

2) 어근과 접미사를 뭉쳐지지 않는 경우

(1) 어근에 《어》, 《음》 이외의 접미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명사나 부사

예: ① 나머지, 마감, 마개, 마중, 자봉, 꼬트머리, 바깥, 뜨더귀, 쓰레기, 울가미,

② 너무, 도로, 바루, 비로소, 자꾸, 뜨딤뜨딤

③ 거뭇거뭇, 나뭇나뭇, 운긋운긋

(2) 어떤 토나 《하다》가 붙어서 단어끝 이루는 일이 없는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된 명사나 부사

예: 동그따미, 부스럭기

갑자기, 반드시(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슬며시, 일찌기

(3) 접미사 《앙, 얼》 또는 《업》, 《음》이 붙어서 이루어진 형용사

예: 가맴다, 누엿다, 둥그엿다, 말짱다, 과맴다, 싸느랴다, 간지럽다, 미덥다, 부드럽다, 시끄럽다, 징그럽다, 어지럽다, 우습다

제24항. 부사에서 접미사 《이》나 《히》가 그 어느 하나로만 소리나는것은 그 소리대로 적는다.

1) <히>로 적는것

예: 감히, 극히, 도저히, 자연히, 작히

2) <이>로 적는것

예: 고이, 너부죽이, 지긋이

제25항. 부사의 접미사가 <이>, <히>의 어
느것인지 똑똑치 않을적에는 다음과 같이
갈라적이다.

1) 어근에 직접 <하다>를 붙일수 있는 경우에는 <히>로 적
는다.

예: 가지런히, 고요히, 공손히, 덩덤히, 마땅히
부지런히, 뜸뜸히, 혼히, 꾸준히

2) 어근에 직접 <하다>를 붙일수 없는 경우에는 <이>로 적
는다.

예: 간간이, 거어이, 번번이

제 7 장. 한자어의 적기

제26항. 한자어는 음절마다 한자의 현대소리에
따라서 적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국가(國家), 혁명(革命),千里馬(千里馬), 녀
자(女子), 요소(尿素), 락원(樂園), 로동(勞
動), 예외(例外)

그러나 아래와 같은 한자어는 변한 소리대
로 적는다.

예:	울음	그름
	나팔	타팔(喇叭)
	나사	타사(螺絲)
	남색	탐색(藍色)
	노	토(櫛)
	유리	류리(琉璃)

제27항. 한자어에서 모음 <케>가 들어있는 음절로는 <계>, <레>, <체>, <예>만을 인정한다.

예:	계산(計算)	계획(計劃)
	세계(世界)	예외(例外)
	예절(禮節)	경례(敬禮)
	혜택(惠澤)	은혜(恩惠)
	예술(藝術)	

그러나 그 본디소리가 <계>인 한자는 그대로 적는다.

예:	揭음	그음
	게시판(揭示板)	게시판
	게재(揭載)	게재

제28항. 한자어에서 모음 <기>가 들어있는 음절로는 <희>, <의>만을 인정한다.

예:	회의(會議)	희망(希望)
	유희(遊戲)	의학(醫學)
	의의(意義)	

띄어쓰기

총 칙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어쓰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자모를 음절단위로 묶어쓰는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한 어휘부류는 붙여쓰기로 한다.

제 1 장. 명사와 관련한 띄어쓰기

제1항. 토가 붙은 명사는 뒤의 명사와 띄어 쓴다.

예: 나라와 인민의 재산
사람과의 사업
학교에서의 정서교양

제2항. 명사들이 토 없이 직접 어울린 경우에는 하나의 대상으로 묶여지는 덩이를 단위로 띄어쓴다.(수사가 섞이여도 단일한 사물의 명칭으로 되는것은 여기에 준한다.)

1) 일반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

예: 사회주의농촌의 발전된 모습
사회주의농촌건설을 힘껏 돕는다.
사회주의농촌건설속도가 빠르다.

사회주의농촌전선속도 장성정형을 보면...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의 단계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일으켰다.

15세기중엽 사회경제형편을 보면...

간부부 부부장물무를 만났다.

조직계퇴치 처장에게 보냈다.

(그거나 《조직계퇴치장》으로 준 경우는 붙여 쓴다.)

제판작업반 반장과 담화한다.

(그거나 《제판작업반장》으로 준 경우는 붙여 쓴다.)

이웃집 마루방 벽에 걸린 그림

전너마을 벽물집 아주머니가 주었다.

전너마을 벽물집아주머니가 주었다.

(《벽물집아주머니》가 고유한 명칭으로 된 경우)
네발짐승이다.

새벌김을 맨다.

10층아파트가 들어섰다.

도인 민위원회중에서 말아본다.

형제적사회주의국가인 민을 비롯하여...

도내 제철공장 콕스 7천여톤 전약.

2) 고유한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

예: 우리 조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새날협동농장으로 갑니다.

만경대위생원의복사사업소에서 왔다.

평안남도 순천군 맥송리에서 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고고학및민
속학연구소 고고학연구실

성포어류몽출입공장 종합가공직장 명출입작업반

에서...

승리58형이 나왔다.

로동신문에 난 기사

리순신훈장을 받았다.

박철부의 토론

3) 고유한 명칭의 앞뒤에 보통명사적인것이 어울린 경우

(1) 칭호는 뒤에 온것만 붙인다.

예: 한인선동무의 토론

리옥희아주머니의 솜씨

아쉬뜨그라미드각하에게 낸 편지

김준식박사를 만났다.

조창길부부장에게 보였다.

박사 김준식의 논문

인민배우 황옥동지의 연거

부부장 조창길에게 보냈다.

(2) 동격어나 이에 순하는 단위군은 띄여 쓴다.

예: 당보 로동신문의 기사

원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3) 고유한 기관명칭의 중간에 끼는 <직속, 부속, 산하...> 등은 앞 단위에 붙여 쓴다.

예: 평양사범대학부속 고등전설학교

내각직속 국어사정위원회

그러나 고유한 기관명칭이 아닐적에는 의미에 따라 처리한다.

예: 사범대학 부속중학교들

보전성산하 계약공장들

(4) 고유한 명칭의 앞뒤에 온 기라의 보통명사적인

것은 띄어쓴다.

예: 량강도 지방공업

조선중앙방송위원회 탁구선수

우리 나라 중앙방송위원회

4) 나란히 어긋린것에 공통적으로 걸리는 단위가 온 경우

예: 아침저녁식사를 여기서 한다.

선진선동사업을 강화한다.

국내국제정세를 연구한다.

기술문화사상혁명을 수행한다.

교육문화보전위생사업에서의 성과

그러나 반접(,)을 찍어서 띄어갈 경우는 뒤에 오는 집호를 제외하고는 띄어쓴다.

예: 세멘트, 강철, 석탄 생산실적

대학내 교원, 학생, 사무원들

교원, 학생, 사무원 회의회

김장범, 박품손, 황임순동무들입니다.

5) 앞 명사뒤 다시 받는 <자신, 자체, 전체...>가 온 경우

예: 기술자자신이 만족있다.

지구자체도 돈다.

남녀로소전체가 일떠섰다.

로동지자체를 대표한다.

<스스로, 모두...>도 이에 준한다.

예: 학생스스로가 깨달았다.

아들딸모두가 씩씩하게 자란다.

제3항. 불찬전명사는 그 앞 단위에 붙여쓴다.

예: 것...지금 바로 증을 칠것.

나위... 더 말할나위가 없다.
 날... 일행은 날이 썰날에 떠났다.
 만큼... 그가 가져온만큼은 가져다 주어야지
 지... 그가 떠난지가 한시간이 넘었다.

다음의 한지어도 불완전명시에 준하여 처리한다.

매: 상... 시간상으로 앞섰다.
 중... 회의중이었다.
 간... 형제간이다.
 전... 그가 오기전에 다 읽자.
 의... 계획의에 더 생산했다.
 후... 그가 온후에 시작하자.
 전... 춘향전, 심청전
 초... 금년초에 공사가 끝났다.
 말... 평양말, 합흥말
 행... 개성행, 부산행
 대... 몇십년대의 처음 보는 대쪽자
 부... 3일부 신문
 열... 개인열 경쟁
 용... 학생용 가람
 급... 60키로급
 분... 5월분 계획
 작... 10시 15분작 38렬차

그러나 《등, 대, 점...》은 띄여쓰며 《빛》도 이에 준한다.

매: 길고 뛰고 달리는 등 운동을 한다.
 작바위, 김꽃분이, 윤장미 봉이 제기했다.

김미나리 봉이 제기했다.

의학대학 테 운수대학 축구시합

대학보원 결 공장기사

학보보양 빛 가정보양

(기판이나 부서이름의 속에 붙어간 <빛>은 붙여
쓴다—고고학및민속학연구소)

제4항. 동사나 형용사의 <ㄴ>, <ㄹ> 형이 시칭
의 뜻이 없이 명사와 어울리면서 그앞에 다
시 <ㄴ>, <ㄹ> 형의 규정어를 받을수 있는
것은 붙여쓴다.

예: 된장(끓은 된장)

식은밥(심한 식은밥)

작은아버지(키가 큰 작은아버지)

잔돈(많은 잔돈)

뜬소문(돌아가는 뜬소문)

뜬뜬(내며놓은 뜬뜬)

제2장. 수사, 대명사와 관련한 띄어쓰기

제5항.. 수는 아라비아수자로 적는것을 원칙으
로 하되 <천, 만, 억, 조> 등의 단위를 우
리 글자르 달아출적에는 그 단위에서 띄어쓰
며 특별한 목적으로 순전히 우리 글자로만
적을 경우에는 <만, 억, 조> 등의 단위에서
띄어쓴다.

예: 1) 93억 7천 258만 6천 365(9, 372, 586, 365)

93억 8만 365(9, 300, 080, 365)

2) 구십삼억 칠천이백오십팔만 육천삼백예순다
섯(9, 372, 586, 365)

구십삼억 팔만 삼백예순다섯(9, 300, 080, 365)

제6항. 《수》나 《여》가 수사와 직접 어울려서 대
체의 수량을 나타내는것은 붙여쓴다.

예: 수십, 수백만, 백여, 천여, 50여

【붙임】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뒤에 온 《여》도 붙여쓴다.

예: 5년여, 3시간여

제7항. 수사가 토 없이 완전명사와 어울린것은
띄여쓴다.

예: 두 공산주의자의 이야기

세 기술일군이 장안하였다.

일곱 녀학생의 아름다운 행실

그러나 련달아세어나갈 때의 단위로 될수
있는 명사 《년, 월, 일, 시, 분, 초, 호, 차,
개, 번, 켄레, 마리, 톨, 알...》 등은 제3항에
준하여 앞 단위에 붙여쓴다.

예: 일년, 이년, 삼년

1년, 2년, 3년

1966년 6월 22일

2시 39분 28초

5호

9차

서른켄데

다섯알

제8항. 대명사는 불완전명사와 직접 어울린것만 붙여쓴다.

예: 이것, 그이, 저분, 무엇때문에, 누구것이냐
이 책, 우리 나라, 우리 오빠, 내 조국, 내 만
년필, 누구 가방

제9항. 같은 수사나 대명사가 거듭되면서 강조하거나 여럿의 뜻을 나타내는것은 붙여쓴다.

예: 누구누구, 무엇무엇(چیست), 하나하나

【붙임】 같은 명사가 거듭되는것도 여기에 따른다.

예: 구석구석(이), 집집(을),
가지가지(에)

제3장. 동사, 형용사와 관련한 띄어쓰기

제10항. 동사나 형용사끼리 어울렸을 경우의 띄어쓰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가 붙은 동사나 형용사가 다른 동사나 형용사와 어울린것은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예: 가지고 오다, 가면서 말하다, 뜯어서 울리다,
봄계 타다, 깨끗하여 좋다

그러나 하나로 녹아붙은 아래와 같은것은 붙여쓴다.

짜고뜯다, 먹고떨어지다

2) <아, 어, 여>첨의 동사나 형용사가 다른 동사나 형용사와 지

접 어울려서 하나의 동작, 상태 등을 나타내는것은 붙여쓴다.

예: (1) 돌아가다, 일어나다, 받아물다, 떠받다, 떠오르다, 띄붓다, 꺼내다, 약하여먹다, 분석하여가지다, 무거워보이다

《아다, 어다, 여다》형도 이에 준한다.

울며다보다, 넘겨다보다

(2) 젊어가다, 견디어나다, 비티어나다, 쓸어버리다, 물어보다, 운동하여보다, 가르쳐주다, 웃어쌌다, 추동시켜쌌다, 싸있다, 잃어나다, 돌아치다

(3) 다듬어지다, 벌어지다, 붉어지다, 보애지다, 행복하여지다, 좋아지다, 반가워하다, 기뻐하다, 만족해하다

3) <아, 어, 여>형이 아닌 다른 형뒤에서도 보조적으로 쓰인 동사나 형용사는 붙여쓴다.

예: 읽고있다, 읽는가싶다, 읽을가보다, 읽고싶다, 쓰다나니, 오고말고

4) <아, 어, 여>형의 동사나 형용사가 잇달아있을 경우에는 행동의 단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띄여쓴다.

예: 기어넘어가 살펴보다
등어가 집어올리다

5) 토 <나, 디...>를 사이에 두고 두개의 동사나 형용사가 겹친것은 붙여쓴다.

예: 기나긴, 크나큰, 다더단, 쓰디쓴

6) <듯, 만, 번, 법, 사, 죄, 체->가 붙은 동사나 형용사가 <하다>와 어울린것은 붙여쓴다.

예: 울듯하다, 물음만하다, 만날번했다, 갈법하다, 웃을사하다, 그럴사하다, 아는체하다

제11항. 동사, 형용사가 명사, 부사와 어울린

경우의 띄어쓰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명사나 부사에 <하다, 되다, 시키다>가 직접 붙은것은 붙여 쓴다.

예: 건설하다, 겨냥하다, 나무하다, 눈짓하다, 바느질하다, 세면되다, 편편되다, 모순되다, 참되다, 일시키다

잘하다, 더하다, 못하다, 못되다, 방긋하다, 무그떡덜그떡하다, 아니하다

공화국 청년된 영예

- 2) 명사에 <지다>가 직접 어울린것은 붙여쓴다.

예: 값지다, 모지다, 살지다, 흠지다, 그늘지다, 굵이지다, 장마지다, 얼룩지다

- 3) 명사에 <답다, 겹다, 맞다, 굶다, 전다, 어리다> 등이 직접 어울려서 활용사조 이루는것은 붙여쓴다.

예: 꽃답다, 남자답다, 흥겹다, 눈물겹다, 능청맞다, 멋적다, 지성어리다, 피어리다

- 4) 명사에 고유어로 된 동사가 직접 어울려서 동사나 활용사를 이루는것은 붙여쓴다.

예: 가살부리다, 극성부리다, 심술피우다, 익살피우다, 방정떨다, 엄부떡떨다, 소리치다, 활개치다, 굵이치다, 고동치다, 밭벗고(나서다), 끝맺다, 시집가다, 맴돌다

빛나다, 유별나다, 끝나다, 류다르다, 멧물어지다, 눈부시다, 감사납다, 질차다, 힘차다, 낮익다, 눈멀다, 힘들다

- 【붙임】 그러나 문맥과 발음으로 보아 앞에 있는 명사에 붙은 로가 준것이 뚜렷할 경우에는 띄어쓴다.

예: 무슨 입(을) 할가?

우리들의 정성(을) 담은 선물(을) 보냈다.

제12항. 《앞, 뒤, 곱, 곱》 등이 접두사와 같이
되어 동사나 형용사와 어울린것은 붙여쓴다.

예: 앞서다, 뒤서다, 뒤늦다, 뒤떨어지다, 곱먹다,
곱쓰다

제 4 장. 관형사, 부사, 감동사와 관련한 띄어쓰기

제13항. 관형사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단어와
띄어쓴다.

예: 모든 책상, 여미 책, 온갖 문제, 새 규정책, 온
마을, 별의별 이야기, 별 이야기, 각 도서관,
여느 기술자문

그러나 이근이나 접두사로 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붙여쓴다.

예: 새해, 새산림, 새집, 새세계, 온종일, 전인민
적, 각살림

제14항. 뜻이 비슷하거나 맞서는 부사를 겹쳐
쓸 경우 또는 같은 부사를 잇달아쓸 경우
는 붙여쓴다.

예: 가보세로, 더욱더, 모두다, 좀더, 서로서로, 이리
저리, 이래저래, 거듭거듭, 꼬루꼬루, 더한층,
이슬땀어슬땀, 울긋불긋

【붙임】 그러나 명확히 끊기여 발음되는 경우는 띄어쓴다.

예: 좀 더, 한층 더, 더구나 더

제15항. 두개이상의 말들이 합치여 한마디의
부사와 같이 된 경우는 붙여쓴다.

예: 간밤에, 이다음, 여머차테, 어느새, 요사이,
두고두고, 끝이끝대로

제16항. 감동사나 느낌을 나타내는 말마디를
잇대여쓸 경우는 소리내는 특성이나 그 뜻
을 고려하여 띄여쓴다.

예: 아아 아! 열시구 열시구 열사 뽕뽕
 아 아아! 열시구열시구 열사뽕뽕

제 5 장. 섞갈리기 쉬운 것 들의 띄여쓰기

제17항. 《나, 니, 락, 다, 든, 쿵, 듯, 등,
쑥, 송...》형의 동사, 형용사를 겹쳐쓸 경
우는 붙여쓴다.

예: 가나오나, 자나깨나, 걸거니뿔거니, 이머니저머
니, 높으락낮으락, 들락날락, 이렇다저렇다, 왔
다갔다, 이렇든저렇든, 이머쿵저머쿵, 죽을똥살
똥, 들쑥날쑥, 셋은듯부신듯, 본숭만숭

제18항. 명사에 동사나 형용사가 어울려서 하
나로 녹아붙은 아래와 같은것은 붙여쓴다.

예: 한결같다, 새벽같이, 번개같이, 쉬죽은듯이, 가
뭇없이, 난데없이, 두말없이, 꼼짝없이, 할수없
이, 할것없이, 다듬아니라, 두말말고

제19항. 동사나 형용사끼리 어울려서 하나로
녹아붙은 아래와 같은것은 붙여쓴다.

예: 아닌게아니라, 덮어놓고, 묻다못해, 하다못해,
보아하니, 아니나다를까

제20항. 명사와 토 없이 직접 어울린 《너머》,
《따라》는 붙여쓴다.

예: 산[●]너[●]머[●] 외가집에 갔다.
오늘[●]따[●]따[●] 바람이 세군.

제21항. 여러가지 문장부호나 기타 부호 다음에
오는 토는 그 부호뒤에 붙여쓴다.

예: 《가》에서 《나》가 모음이다.
X는 모르는 수다.

제 6 장. 특수한 말의 띄어쓰기

제22항. 학술용어는 하나의 대상으로 묶어지는
덩이를 단위로 띄어쓴다.

예: 작은물병아리, 나도국수나무, 펴의다리아재비

제23항. 아래와 같은 익은 한자어는 비록 자립
적으로 쓰이는 단위로 갈라낼수 있는 경우
라도 붙여쓴다.

예: 련전[●]련[●]승, 오십[●]보[●]백[●]보, 대대[●]손[●]손, 동서[●]남[●]북

문장부호법

총 칙

1. 현대조선말의 문장부호는 문장들, 문장안의
각 단위들을 뜻과 기능에 따라 갈라주기 위
하여 친다.
2. 이 문장부호법은 가로쓴 현대조선말의 글에
서 쓴다.

제1항. 문장부호의 종류와 이름

· 점	<> 인용표
: 두점	<> 거듭인용표
; 반두점	() 반말괄호
, 반점	[] 뒤여괄호
? 외문표	... 밑점
! 감탄표	○○○ 숨김표
- 이음표	" 감음표
— 풀이표	~ 붙임표
… 줄임표	

제2항. 점(.)

- 1) 문집이 끝났음을 보일 때 문집끝의 오른쪽 아래쪽에 찍는다.
예: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동당시대에 살고있다.
- 2) 화자나 준말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른쪽 아래쪽에 찍는다.
예: 1945. 10. 10.

【붙임】 달과 날의 수자를 합쳐서 이문 명사에서는 그 수

자사이에 찍는다.

예: 5.1절, 8.15, 6.6절, 3.8절

- 3) 대목이나 장, 절을 가르는 부호에 밑호나 몽그라미가 없을 때 그 부호의 뒤에 찍는다.

예: [1. 3.

제3항. 두점 (:)

- 1) 뒤의 설명을 보라는것을 밝히는 단어나 간단한 말마디 뒤에 찍는다.

예: 물음:

주의:

비교:

김옥희동무의 토론:

- 2) 한 문장이 대체로 끝나면서 뒤에 오는 말들이 앞 문장을 설명하거나 보충할 때에 그 앞 문장의 끝에 찍을수 있다.

예: 장내는 바야흐로 흥성거렸다: 손님들이 밀려들고, 아이들이 뛰놀고, 풍악소리가 들리고 하면서...

우리 공장에서는 여러 제품들을 만들고있다: 옷장, 책상, 질상 등.

제4항. 반두점 (;)

- 1) 한 문장안에 이미 반점(,)으로 구분된 말이 여러개 잇달아 있을 때 더 크게 묶어지는 단위가 있으면 그사이에 찍을수 있다.

예: 상점에는 무우, 배추, 시금치 등과 같은 남새; 물고기, 미역, 갯갈 등과 같은 갯가지 수산물; 그리고 여러가지 과일들이 차있다.

- 2) 복합문이나 아주 긴 문장에서 일부 단위가 반점(,)으로 끊어져 있을 때에 더 큰 단위를 보이기 위하여 찍을수 있다.

예: 이들은 노동자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데 많은 힘을 들였다. 노동자의 기능수준, 기업소의 발전전망, 생산의 장성속도 등을 고려하여 이 사업을 계획성있게 끌고나갔으며; 직종, 기능, 작업장 등의 조건을 잘 타산하여 기술작업반을 조직하여 잘 운영하였으며; 기능이 높고 낮은 노동자를 잘 배합하여 개별전습을 잘하도록 하였다.

제5항. 반점(,)

1) 복합문에서 접속사가 없이 문장들이 이어질 때 단순문사이에 찍는다.

예: 나는 노동자, 너는 농장원.

2) 어떤 문장이나 말마디가 중점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뒤의 문장이나 말마디와 밀접히 연결되어있을 때에는 그 중점어의 뒤에 찍는다.

예: 바람이 세다, 창문을 주의해라.

오리다, 오리다, 통일 의 그날은 반드시 오리다.

3) 죽 들어 말한 단어나 말마디를 사이를 갈라주기 위하여 찍는다.

예: 공장에서, 농장에서, 바다와 땅 밑에서—어디서나 기적이 창조된다.

4) 문장의 첫머리나 가운데에 들어있는 호칭어, 삽입어, 감동어 같은 것을 구분하기 위하여 찍는다.

예: 순희야, 너 언제 왔느냐?

우리는, 다시말하면, 계획을 앞당겨하려는 굳은 결심을 가진 우리는...

아, 우리 조국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5) 제시어뒤에 찍는다.

예: 땅, 그가 있음으로 하여 오늘의 천리마시대가 있다.

6) 문장성분의 차례를 바꾸어 한 부분을 특별히 짚주어나타낼 때에는 그 짚준 말뒤에 찍는다.

예: 나가자, 앞으로, 원수를 무찌르고.

7) 두개이상의 규정하는 말이 있을 때는 그사이에 찍을수 있다.

예: 한데 뭉친, 아무도 꺾을수 없는 인민의 힘
인민들의, 꺾을수 없는 힘

8) 문장에서 단어들의 관계가 석각될수 있을적에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하여 찍는다.

예: 가을은, 무덤고 썩고 숨막히는 여름 삼복때와는 달라서 하늘이 아주 맑다.

제6항. 의문포(?)

1) 뜻을 나타내는 문장끝에 친다.

예: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들이 할 임무는 무엇인가?

기차가 도착하였어?

【붙임】그러나 의문포로 끝나는 모든 경우에 의문포(?)를 치는것은 아니다.

예: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나.

도대체, 그래, 이것이 어찌되었단 말인가!

2) 표현을 꾸미기 위하여 의문법을 리용한 문장에도 친다.

예: 매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내가 왜 이려고있을가? 빨리 가야지.

우리들에게 액비가 있는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3) 의심쩍거나 망서리게 됨을 나타낼 때 친다.

예: 김동무가 왔다?

어떻게 할가? 이것도 가져갈가?

제7항. 감탄표(!)

1)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끝에 친다.

예: 아, 금강산은 참말 아름답구나!

여기에 한 당원의 투쟁의 역사가 아로새겨져 있다!

동무들, 끝까지 앞으로!

택전백승의 타스-매년주의기치 만세!

2) 호칭어, 감동어, 제시어들이 선 감동적어조를 가지고있을 때 그뒤에 친다.

예: 동지들과 벗들! 우리의 생활이 행복할수록 남남 명형제들을 잊지 말자.

천리마! 이것은 조선인민의 기상을 얼마나 잘 나타내주고있는가.

【붙임】 (1) 호칭어, 감동어, 제시어가 있는 문장의 마지막에 어떤 부호를 치는가 하는것은 제2항, 제6항 및 제7항 1)의 규정을 따른다.

(2) 호칭어나 감동어가 접치는 경우에는 느낌의 선 정도에 따라 알맞게 가려줄수 있다.

예: {동지들! 천리마기수들!
{동지들, 천리마기수들!

{아! 참 좋구나!
{아! 참 좋구나.

{ 어머니! 이걸 보세요.
어머니, 이걸 보세요!

제8항. 이음표 (-)

두개이상의 단어가 어울리어 하나의 통일된 개념을 나타낼 때 쓴다.

- 예: (1) 랍스-데닌주의
공업-농업국가
(2) 굳은-넓은잎나무

제9항. 풀이표 (—)

1) 축적어뒤에 쓴다.

- 예: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열사들이 걸어온 길—혁명투쟁의 길은 빛나는
업적길로 가득차있다.

【붙임】 제시어다음에는 반점(,)을 찍을수도 있고[제 5항 5) 참조], 풀이표(—)를 쓸수도 있다.

예: 우리 생활—그것은 곧 예술이다.

2) 같은 종류의 투쟁성분들과 그것에 대한 중립어의 사이에 쓴다.

- 예: 벼, 보리, 밀, 옥수수—이런 알곡들은...
이런 알곡들—벼, 보리, 밀들은...

3) <에서—까지>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쓴다.

- 예: 평양—신의주
10시—12시

4) 서로 맞서는 관계를 나타낼 때 쓴다.

- 예: 사대—공대 축구시합

제10항. 슬임표(…)

- 1) 문장의 일부가 뺀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찍되, 섹점(….)을 찍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그때 박동무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그때 그것을 알고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어떻게 그런걸…

- 2) 제목이나 차례의 뒤에 보충하는 설명을 붙일 때 쓸수 있다. 이 때의 점의 수는 제한이 없다.

예: 머리말……………편집위원회
출리강좌……………박우희

제11항. 인용표(《 》, < >)

- 1) 이미 이루어진 말이나 글을 따올 때는 그 문장의 앞뒤에 갈라친다.

예: 《순희가 이겼지》 하고 신이 나서 이야기하였다.

- 2) 어떤 말을 특별히 드러내서 나타법적에 그것의 앞뒤에 갈라친다.

예: 《전기화속도》
《서광》(2부)
《승리58형》

- 3) <소위>라는 뜻을 가지고 따온말마디의 앞뒤에도 갈라친다.

예: 미제는 《원조》를 미끼로 남의 나라를 침략한다.

- 4) 인용표안에 또 다른 따온말이 있을 때는 거름인용표(<>)를 둔다.

예: <우리는 <달리는 천리마에 또한번 박차를 가

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나아간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제12항. 괄호((), [])

1) 본문을 보충하기 위하여 붙인 말의 앞뒤에 갈라친다.

예: 내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였다.(그해도 풍년이 들었었다.) 어머니는 내가 떠날 때...

2) 특별히 설명하는 말을 끼울 경우에 그 앞뒤에 갈라친다.

예: 박근속동무(2중천리마기수이다.)는 오늘도 자기 계획을 넘쳐하였다.

3) 따옴말의 나온 곳을 밝히는 말마디의 앞뒤에 갈라친다.

예: 《조선로동당의 역사는 내외의 원수들을 반대하여 비라협적으로 투쟁하여온 역사이고 이 투쟁 속에서 당원들, 전체 인민들을 굳게 단결시켜온 역사이며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여온 역사이고 사회주의적기초우에서 민족 경제와 문화물 건설하여온 역사이다.》(《조선로동당역사교재》,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년판, 519페이지)

4) 괄호안에 또 다른 괄호가 있게 될 때에는 바깥것은 꺾쇠괄호(())로, 안의것은 반딧괄호(< >)로 묶을수 있다.

예: 《근대철학의 큰 기본문제는 존재에 대한 사유의 판계여하의 문제이다.》(《루트히리 포이에트바하와 독일고전철학의 종말》(에프. 엥겔스),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년판, 25페이지)

5) 제목이나 증목을 특별히 드러내놓기 위하여 꺾쇠괄호(())를 쓴다.

예: [지리현]

1. 면적
2. 인구

6) 간단한 풀이를 한 밑줄 표시하기 위하여 꺾쇠괄호()를 쓴다.

예: 사람 [명사]

출다 [형용사]

제13항. 밑점(...)

문장안에서 특별히 중점을 두고 힘주어 말하는 부분이나 읽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한 부분에 찍되 점의 수는 글자의 수에 따른다.

예: 우리의 관심은 어디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에 있었다.

【붙임】 힘주어 말하는 부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는 밑줄()이나 기타 문 할 수도 있다.

제14항. 숨김표(○○○)

문장에서 글자로 나타내고 싶지 않을 적에 그 글자 수만큼 두 된 숨김표의 띄여쓰기도 숨김표의 띄여쓰기에 따른다.

예: ○○명으로 조직된 우리 습격대는 ○○○방향의 ○○, ○○○을 향하여 떠났다.

【붙임】 숨김표로는 《□□□》나 기라도 쓸 수 있다.

제15항. 갈음표(〃)

같은 말이나 같은 표현이 겹쳐나올 때 두번째부터의 그 부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쓸 수 있다.

- 예: 제1작업반 반장
 제2 " "
 제3 " 부반장

제16항. 물결표(～)

- 1) <내지>라는 뜻으로 쓰되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마지막 수자에만 붙인다.

예: 5～8월, 10～12월, 100～150명

- 2) 단위가 되풀이되면서 그 임무를 끝일 때 쓴다.

예: 계속

～가

～하다

제17항. 인용표와 괄호 안에서의 부호

- 1) 인용표나 괄호 안의 말이 문장의 경우는 거기에 문장으로서 필요한 부호를 친다.

예: <올해도 거름을 많이 냅시다! 50문은 문제 없습니다.>라고 순희는 신이 나서 말한다.

우리는 그때 몹시 긴장되어있었다.(상반년계획을 5월안으로 끝낼 작정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과업들이 더 있었던것이다.)

- 2) 인용표나 괄호 안의 말이 문장이 아닌 경우는 그것을 위한 아무 부호도 치지 않는다.

예: 다시한번 <평양속도>를 창조하자!

학생들(다섯사람)은 노래부르며 마을앞을 지나간다.

그러나 인용표나 괄호 안의 말이 여러 마디일적에는 그것을사

이를 구별하는 부호를 친다.

예: 《견주다, 겨누다, 겨루다》는 소리가 비슷하나
뜻이 다른 단어들이다.

같이 있던 네사람(작업반장, 경숙동무, 래식아
바이, 운전공)이 달려왔다.

3) 인용표안에 있는 문장의 끝에서 전체 문장도 끝나는 경우는
끝맺는 부호를 다음과 같이 친다.

(1) 인용표안의 문장과 전체로서의 문장이 같은 종류의
문장일적에는 인용표밖에만 해당하는 부호를
친다.

① 다같이 서술문인 경우

예: 우리는 참으로 《달는 말에 채찍질을 한
다》.

② 다같이 의문문인 경우

예: 속담에도 있다싶이 아무려면 《아니뎌 글
투에서 연기 날가》?

③ 다같이 감탄문인 경우

예: 동무들, 결의한대로 《금년과제물 당창전
기념일안으로》!

(2) 인용표안의 문장과 전체로서의 문장이 다른 종류의
문장일적에는 인용표의 안팎에 각각 해당하는 부
호를 친다.

예: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그의 말을, 《조
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니, 벌써 《진달래꽃이 피었다.》?

4) 괄호안의 말이 전체 문장의 끝에 있는 경우는 괄호뒤에 아
무 부호도 치지 않는다.

예: 공든 탑이 무너지랴? (속담)

우리는 몹시 기뻐다. (분기계획이 보통전에 끝났던
것이다.)

제18항. 제목글에서의 부호

- 1) 제목글이 종결토로 끝난 서술문, 김타문, 의문문의 경우는 문장의 끝에 해당하는 부호를 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우리는 이렇게 자랐다.

꾸며놓으니 참 좋다!

그러나 특수한 출판물에서 특별히 큰 활자를 쓴 경우는 점(·)에 한하여 제외 않을수 있다.

- 2) 신문, 잡지 등의 제목글이 명명문이거나 또는 종결토 없이 끝난 문장의 경우는 부호를 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꽃피는 예술

창고장에 대한 이야기

【붙임】 그러나 특별히 감정의 색채를 뚜렷이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부호를 칠수도 있다.

예: 승리의 역사!

세국주의자본의 <친선>?

제19항. 대목이나 장, 절 등을 가르는 부호와 그 차례

대목이나 장, 절 등을 갈라가는 부호와 그 짜는 차례는 다음과 같이 통일하며 그 이름도 하나로 정하여 부른다.

I, II, III.....로마수자 일, 이, 삼...

1, 2, 3..... 아라비아수자 일, 이, 삼...

1) 2) 3)반괄호 일, 이, 삼...

(1) (2) (3).....괄호 일, 이, 삼...

① ② ③동그라미 일, 이, 삼...

표준발음법

총 칙

표준발음법은 현대조선말의 여러가지 발음들 가운데서 조선말발달에 맞는것을 가려잡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장. 모음의 발음

제1항. 모음들이 일정한 자리에서 각각 길고 낮은 소리와 짧고 높은 소리의 차이가 있는것은 있는대로 발음한다.

짧고 낮은 소리	길고 낮은 소리
예: <u>밤</u> (낮과 밤)	<u>밤</u> (밤과 대수)
사 <u>다</u> (채운 사다)	<u>사</u> 람
좁 <u>다</u> (촌이 좁다)	<u>좁</u> 다(뜻이 좁다)

제2항. <ㅣ>는 겹모음으로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기>는 어떤 자리에서나 홀모음으로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항. 한자어에서 <ㄱ, ㄴ, ㅇ>뒤에 있는

《케》는 제대로 발음하지 않는다. 글에서
《게, 레, 헤》로 되어있는것은 각각 [게,
테, 헤]로 발음한다.

예: 계속—[게속] 의례—[의례]
판계—[판계] 헤액—[헤액]

제2장. 단어 첫머리의 발음

제5항. 《ㄹ》은 모든 모음앞에서 [ㄹ]로 발음하
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른문 락하산 리문
리 료 린
라지오 료케트

제6항. 《ㄴ》은 모든 모음앞에서 [ㄴ]로 발음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니탄, 노소, 디켄, 뉴문

제3장. 받침소리의 발음

제7항. 우리 말의 받침소리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다.

제8항. 받침소리 [ㄹ]는 음절의 첫소리로 되는

[ㄹ]와는 달리 실측음으로 발음한다.

【붙임】 그러나 다른 음질의 첫소리인 [ㅎ]가 '뒤에 이어
질 때는 모음앞에서 나는 것과 비슷하게 발음한다.

제9항. 받침자모와 받침소리의 호상관계는 다
음파 같다.

1) 받침 <ㅍ, ㅑ, ㅓ, ㅕ>의 받침소리는 [ㄱ]다.

예: ㅍ—[ㅍ] 부엌—[부엌]
 ㅑ—[ㅑ] 닭—[닥]
 ㅓ—[ㅓ] 밥다—[ㅍ따]

【붙임】 받침 <ㄹ>은 그뒤에 르나 겹사 <고, 기, 게...>
동이 올 때는 [ㄹ]로 발음할 수 있다.

예: ㅍㄹ—[ㅍㄹ] ㅎ기—[일기]
 꺾기—[꺾기]

2) 받침 <ㅌ, ㅊ, ㅌ, ㅎ, ㅗ, ㅛ>의 받침소리는 [ㄷ]다.

예: ㅌ—[ㅌ] ㅊ—[ㅊ]
 ㅌ—[ㅌ] ㅎ—[ㅎ]
 ㅗ—[ㅗ] ㅛ—[ㅛ]
 있다—[일따]

3) 받침 <ㅍ, ㅓ, ㅕ, ㅗ, ㅛ>의 받침소리는 [ㅂ]다.

예: ㅍ—[ㅍ] ㅓ—[ㅓ]
 ㅕ—[ㅕ] ㅗ—[ㅗ]
 ㅛ—[ㅛ] ㅛ—[ㅛ]
 넙지—[넙찌]

【붙임】 (1) 받침 <ㅍ>은 그뒤에 르나 겹사 <고, 기,
게...> 동이 올 때는 [ㄱ]로 발음할 수 있다.

예: ㅍㄹ—[ㅍㄹ] ㅍ기—[넙기]
 ㅍ기—[넙기]

(2) <여덟>만은 언제나 [여덟]로 발음한다.

4) 받침 <ㅈ, ㅊ, ㅊ>의 받침소리는 [ㄱ]다.

예: 출다—[출따] 죽—[죽]
출다—[출따]

5) 받침 <ㄹ>의 받침소리는 [ㅇ]다.

예: 살다—[삼따] 젊고—[점표]

6) 받침 <ㄷ, ㅌ>의 받침소리는 [ㄴ]다.

예: 앉다—[안따] 없고—[업표]
만다—[만따] 많지—[만치]

제 4 장. 받침이 뒤의 모음과 이어질 때의 발음

제 10 항. 모음으로 시작한 토나 접미사의 앞에
있는 받침은 그 모음에 이어서 발음한다.

예: 먹이—[머기]	부엌에—[부어케]
짜오니—[까끄니]	반오면—[바드면]
밭어—[바테]	웃을—[오술]
잇었다—[이질따]	꽃이—[기피]
입어—[이베]	있을—[기피]
손으로—[소느로]	몸에—[모매]
밭을—[바꾼]	깊이—[기피]
삼밭이—[삼바리]	

【붙임】 (1) 그러나 부름을 나타내는 토 <아>앞에 있는
<ㅅ>받침은 [ㄷ]로 발음한다.

출어—[출퍼]	물운—[물술→물쌀]
엮으니—[언즈니]	삼아—[살마]
넋이—[넋시→넋씨]	흙어—[홀터]
밧아—[밭바]	

- 【붙임】 (1) 붙임침 <ㅅ, ㅆ>과 편편되는 발음은 제17항의 규정을 따른다.
- (2) 붙임침 <ㅈ>뒤에 <ㅣ>가 오는 경우의 발음은 제23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 5 장. 받침에 따라 그뒤의 순한소리를 된소리로 내는 발음

제14항. 토나 접미사의 첫머리에 온 순한소리는 용언의 어간의 끝소리 <ㄴ>, <ㅇ>에 이어낼 때 해당한 된소리로 발음한다.

배: 안다—[안따]	잡다—[잡따]
안고—[안꼬]	잡겠다—[잡겜따]
안지—[안찌]	잡지—[잡찌]
안기—[안끼]	잡게—[잡끼]

【붙임】 (1) 붙임침 <ㄷ, ㅌ>으로 끝난 어간뒤에서도 된소리로 발음한다.

배: 읊다—[읍따]	앉기—[안끼]
읍겠다—[읍겜따]	

(2) 그러나 접미사가 피동이나 사역의 뜻을 나타내는 <기>일적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예: 안기다—[안기다] 감기다—[감기다]
 신기다—[신기다] 남기다—[남기다]
 옮기다—[옮기다]

제15항. 한자어안에서는 《ㄹ》받침뒤에 오는 순
 한소리 《ㄷ, ㅂ,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발단—[발뎡] 말전—[말뎡]
 절승—[절쑤]

【붙임】 그러나 같은 한자가 겹쳐서 이루어진 한자어에서
 는 된소리로 내지 않는다.

예: 전전하다—[전전~]

제 6 장. 《ㅎ》과 관련된 발음

제16항. 토나 접미사의 첫머리에 온 순한소리는
 어간의 끝받침 《ㅎ, ㅅ, ㅌ》뒤에서
 《ㅎ》과 어울리어 거센소리로 된다.

예: 좋다—[조따] 많더마—[만터따]
 좋고—[조코] 많거—[만키]
 옮지—[올치] 옮겼다—[올쨌따]

제17항. 어간끝의 《ㅎ》은 모음으로 시작한 토
 나 접미사 앞에서 발음하지 않는다.

예: 달아—[다아]
 많으니—[만으니→다느니]
 싫어—[실어→시더]

제18항. 음절의 첫소리 [ㅎ]는 모음이나 유성
자음 뒤에서 약하게 발음한다.

예: 마흔, 아흐레, 안해, 연골, 일흔

제19항. 어간끝의 <ㅎ>은 <ㅅ>이나 <ㄴ>으로
시작한 토앞에서 [ㄷ]처럼 발음한다.

예: 종소—[죇쏘] 종니—[죇니→죇니]

【붙임】 자모 <ㅎ>의 이름 <히읃>은 <히읃>과 같이 발음
한다.

예: 히읃—[히읃] 히읃이—[히으시]
히읃을—[히으술] 히읃에—[히으세]
히읃과—[히읃과]

제20항. 들받침 <ㅏ>이나 <ㅑ>으로 끝나는 어
간에 <ㅅ>이나 <ㄴ>으로 시작하는 토가
이어질 때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예: 많소—[만쏘] 읍소—[읍쏘]
많네—[만네] 읍네—[읍네]

제21항. 한 단어안에서 <ㄱ, ㄷ, ㅂ, ㅈ>뒤에
<ㅎ>이 올 때 그 <ㅎ>은 각각 [ㅋ, ㄸ, ㅊ,
ㅌ]로 발음한다.

예: 먹히다—[먹키다] 말형—[말똥]
역할—[역갈] 꽃히다—[꽃치다]
잡히다—[잡피다] 입학—[입팍]
대접하다—[대접과다]

【붙임】 구개음으로 되는 현상에 대하여는 제23항을
보라.

제22항. 들받침으로 끝난 형태부뒤에 접미사 《히》가 올 때는 들받침의 왼쪽 자모는 제대로 받침소리로 내고 오른쪽 자모는 《ㅎ》과 합하여 해당한 거센소리로 발음한다.

예: 밝히다—[발키다] 밥히다—[발피다]
 앉히다—[안치다]

제 7 장. 동화현상이 일어날 때의 발음

제23항. 받침 《ㄷ, ㄷ, ㅌ》뒤에 토나 접미사인 《이》가 올 때 받침 《ㄷ, ㄷ》은 그 《이》와 어울려 각각 [지, 치]로 발음한다.

예: 굳이—[구지] 밥이—[바치]
 붙이다—[부치다] 벼훑이—[벼훑치]

제24항. 받침소리 [ㄱ, ㄷ, ㅂ]뒤에 자음 [ㄴ, ㄹ, ㄷ]가 이어질 때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 1) ㄱ+ㄴ→(ㄱ+ㄴ)
 익는다—[잉는다] 당네—[당네]
- ㄱ+ㄹ→(ㄱ+ㄹ)
 적멸—[계멸] 먹물—[명물]
- ㄱ+ㄷ→(ㄱ+ㄷ)
 식모품—[싱모품] 적혀—[계혀]

2) $\Gamma + L \rightarrow (L + L)$

받는다—[반는다] 있네—[인네]

웃느냐—[운느냐]

$\Gamma + \square \rightarrow (L + \square)$

반모—[반모] 웃맵시—[운맵시]

만머느리—[만머느리]

【붙임】 $\langle \Gamma + \square \rangle$ 의 경우에 $[\square + \square]$ 로 발음하는것을
바른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

음음

그음

걸모양—[건모양] (검모양)

덧물—[던물] (덤물)

3) $\Gamma + L \rightarrow (\square + L)$

집누에—[짐누에] 엽는다—[업는다]

$\Gamma + \square \rightarrow (\square + \square)$

밤물—[밤물]

$\Gamma + \Gamma \rightarrow (\square + \Gamma)$

범명—[범명]

제25항. 받침소리 [h, t]를 뒤에 온 [g, b]와 같아지게 발음하는것은 바른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

그개

그개

박그릇—(박그릇) 밥판개—(박판개)

엿보다—(업보다) 돌보기—(뚝보기)

제26항. 받침소리 [L, □]가 뒤에 온 자음 [g, gg, k]를 닮아서 [o]로 되는것은 바른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	그물	그물
안기다—(앙기다)		남기다—(낭기다)
온갖—(웅갈)		삼키다—(상키다)
산푼대기—(상푼대기)		잡포—(장포)
손칼—(송칼)		감기—(강기)

제27항. 받침소리 [ㄴ]가 뒤에 온 자음 [ㄱ, ㅃ, ㄲ, ㅋ]를 닮아서 [ㄱ]로 되는것은 바른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	그물	그물
섬바위—(섬바위)		산릉—(삼릉)
산포도—(삼포도)		전포—(점포)
감병원—(감병원)		산마루—(삼마루)
쉽만—(윽만)		

제28항. 받침소리 [ㄴ]뒤에. 자음 [ㄴ]가 왔거나 받침소리 [ㄴ]뒤에 자음 [ㄴ]가 올적에는 그 [ㄴ]는 [ㄴ]로 발음한다.

예:	1) 벨나라—[벨라타]	물놀이—[물르티]
	칠남매—[칠람매]	달논지—[달론지]
	2) 근로자—[근로자]	완만—[알만]
	철리—[철리]	분류—[분류]
	근대—[근대]	완모—[완모]

제29항. 한자어안에서 받침소리 [ㄴ]와 다음음절의 첫소리 [ㄴ]가 이어질 때는 제대로 [ㄴㄴ]로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안녕—[안녕]	선님—[선님]
	안내—[안내]	

【붙임】 다음 단어들은 이미 그 발음이 굳어진대로

《르르》로 발음한다.

예: 곤난—[골란] 한나산—[할타산]

제30항. 《ㄱ, ㅋ, ㆁ, ㆑》가 그뒤의 음절에 있는 《ㅣ》의 영향을 입어 [개, 케, 기, 기]로 각각 변하는것은 바른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문화어로 결정되어 맞춤법에서 이미 고정된것은 여기에서 문제로 삼지 않는다.)

예: **잡**피다

잡피다—[잡피다]

죽이다—[죽기다]

떡이다—[떡기다]

놓이다—[놓피다]

모기—[모기]

그중

(잡피다)

(죽기다)

(떡기다)

(놓피다)

(모기)

제8장. 사이소리현상이

일어날 때의 발음

제31항. 합성어(또는 접두사와 어근이 어울린 단어)의 앞 형태부가 자음으로 끝나고 둘째 형태부가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될 때는 그사이에서 [ㄴ]를 덧붙여 발음한다.

예:	밭입	물약
	부엌일	콩엿
	것이기다	담요

제32항. 합성어(또는 접두사와 어근이 어울린 단어)의 첫 형태부가 모음으로 끝나고 둘째 형태부가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될 때는 그사이에서 [ㄴㄴ]를 덧붙여 발음한다.

예:	바다일—[바단닐]	대잎—[대뵤]
	수여우—[순녀우]	

제33항.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 어근이 순환소리나 유향자음으로 시작한 합성어에서는 그 두 어근사이에서 받침소리 [ㄷ]를 덧붙이는것처럼 발음한다.

예:	배전—[뵤전→뵤뵤]
	배머리—[뵤머리→뵤머리]
	가위밥—[가원밥→가원뵤]

제34항. 합성어의 앞 어근이 유향자음으로 끝나고 뒤 어근의 첫소리가 순환소리일 때는 그 순환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그믐달—[그믐뵤]
	손등—[손뵤]

제9장. 한자어에 접두사나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한 단어를 이룰 때의 발음

제35항. [ㄹ]첫소리를 가진 한자어앞에 [ㄴ]
를 끝소리로 하는 접두사가 올 때는 그
[ㄹ]를 [ㄴ]로 발음한다.

예: 전벽량—[전명량]

제36항. 끝소리가 [ㄴ]로 끝나는 한자어뒤
에 [ㄹ]첫소리를 가지는 접미사가 붙어서 다
른 한 단어로 되었을 때는 그 [ㄹ]첫소리를
[ㄴ]로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보판로—[보판로] 생산력—[생산력]
 생산량—[생산량]

제10장. 단어들 이 어울릴 때의 발음

제37항. 받침소리 [ㄱ, ㄷ, ㅂ]로 끝나는 앞
단어와 유향자음으로 시작하는 뒤 단어가
잇달아 발음될 때는 앞 단어의 받침소리
를 뒤 단어의 유향자음에 갈아지는 방향으
로 발음한다.

예: 밥 먹는다—[밥 명는다]
 옷 만든다—[온 만든다]
 약 마신다—[양 마신다]
 지극 노력한다—[적공 노력한다]

【참고】 뒤 단어의 첫소리가 순한소리인 경우에는 그
 것을 된소리로 내지 않는다.

비교: 탁 끌어온다—[탁 드터온다]
 탁 떨어진다—[탁 떠머진다]

제38항. 앞 단어가 받침으로 끝나고 뒤 단어의
 첫소리가 [아, 어, 오, 우] 동일적에는 절음
 현상이 일어나게 발음한다.

예: 옷우에—[올우에]
 팝아퐁키로—[팝아퐁키로]
 꽃잎우에—[콘넵우에]

제39항. 앞 단어가 받침으로 끝나고 뒤 단어의
 첫소리가 [이, 야, 어, 요, 유] 동일적에는
 제31항에 시가 같이 발음한다.

예: 흙 이기다 한 일
 갠 열단 달 일
 옷 열벌

제40항. 뒤 단어가 《있다》인 경우에는 앞 단어
 의 끝소리가 [ㄱ, ㄷ, ㅂ] 등과 같은 자음
 이라 할지라도 절음현상이 일어나게 발음하
 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값있는—[잡인는]
 옷 있는 곳—[올인는곳]
 부엌 있는쪽—[부역인는쪽]

【붙임】 <갓있다>, <멋있다>만은 [마실다], [머실다]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1항. 규정형로 <ㄹ>뒤에 순한소리로 시작하는, 자립성없는 단어가 오거나 로의 한 부분이 올 때는 그 순한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갈바—[갈바] 갈매—[갈매]
 갈뚝—[갈뚝] 갈것—[갈것]
 갈적—[갈적] 갈가?—[갈까]
 갈수목—[갈수목] 갈지라도—[갈찌라도]

제42항. <열>, <어둠> 뒤에 순한소리로 시작하는 명사가 올 때는 그 순한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열기—[열끼] 열단—[열뎨]
 어둡자—[어뎨짜] 어둡벌—[어뎨뎨]
 열그릇—[열끄릇]

제 1 1 장. 한자어에서의 된소리 발음

제43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이소리를 내어 발음한다.

1) ~Ⅲ(科, 課)

내파—[내파]	외파—[외파]
경리파—[경리파]	

2) ~가(價)

단가—[단가]	대가—[대가]
원가—[원가]	평가—[평가]

3) ~적(的)

당적—[당적]	군적—[군적]
도적—[도적]	내적—[내적]

4) ~권(券, 權)

여행권—[여행권]	관광권—[관광권]
생존권—[생존권]	인권—[인권]

【붙임】 <권(卷)>의 경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붙임	그림
일권—[일권]	(일권)
상권—[상권]	(상권)
하권—[하권]	(하권)

5) ~법(法)

헌법—[헌법]	형법—[형법]
문법—[문법]	

6) ~점(點)

우점—[우점]	거점—[거점]
팔점—[팔점]	구점—[구점]

7) ~건(件)

안건—[안건]	사건—[사건]
문건—[문건]	

8) 기타

성파—[성파]	창고—[창고]
성적—[성적]	조건—[조건]

조선말구법집

저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직속 국어사정위원회 편집자 어문편집부

발행소	사회과학원출판사	주소	평양시 대동강구역 립제동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일	1966년 7월 25일	일	1966년 7월 30일

7-62252

값 25원

